전북서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 모색

전북자치경찰위원회 공동 주관 정책 포럼 개최…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 위한 자치경찰 역할 강구

정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권 강화 실현'을 위해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전문가·관련기관·현장경찰 등 전국의 관계자 100여명이 한 자리에 모여 자치경찰의 역할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가 전북에서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연주),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회장 한진호 인천자치경찰위원장),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 강성조)이 공동 주관한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포럼'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포럼은 '지역소멸과 저출생 위기 극복, 자치경찰이 함께 합니다!'라는 주제로 개회사와 축사, 발제 및 종합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자치경찰위원장협의회, 한국지방세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자치경찰권 강화 정책 포럼'이 24일 전북특별자치도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연주 자치경찰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자치경찰은 주민 생활 속 가장 가까이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고, 그만큼 자치경찰권 강화는 주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이번 포럼을 통해 진정한 자치경찰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정책·입법 개선방안이 제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축사에서 "자치경찰은 진정한 지방시대 실현의 핵심이라며, 저출생이 지역소멸을 앞당기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치경찰의 역할과 대응이 주민의 관심과 신뢰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승우 전북도의장은 "자치경찰제도는 여전히 보완돼야 할 점이 많으며, 자치경찰제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해서는 별도의 재정 제도가 마련되야 한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로 발제를 맡은 김경아 전북대학교 교수는 '저출생과 다문화 시대에 대응하는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략'이라는 주제로 지역소멸에 대응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와 외국인 유입에 따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자치경찰의 역할에 대해 제시했다.

이어 발제한 김홍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은 '자치경찰 이원화에 따른 재원확보 및 운영 방안'을 주제로 자치경찰 이원화를 위한 완전한 재정제도 마련을 위해 자치경찰사무 과태료의 지방 이양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기관 상지대학교 교수의 진행으로 장일식 경찰대 자치경찰발전연구원 부원장, 장윤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조기현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황문규 중부대학교 교수, 윤태웅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선임연구위원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토론에서 첨단기술과 주민 참여를 결합한 과학치안 활성화와 학교에 자치경찰관을 파견하는 '자녀·아이 안심 교육환경' 조성 등 저출생에 대응한 안전한 지역 치안여건 조성 방안이 제시되었다.

한편 자치경찰제도는 2021년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나,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일원형 자치경찰제로 운영되고 있다.

이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해 지역밀착형 치안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자치경찰 사무·인력·예산을 시·도에 완전히 이관하는 자치경찰 이원화 시행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만호 기자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 개최

전주시, ICT 분야 일자리 창출·청년 창업 돕기 위해 진행

디지털 분야의 청년 취·창업을 돕고 전주지역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일자리 축제가 열렸다.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주권 4개 대학은 24일 전주실내체육관에서 '제2회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지역 ICT 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 창업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에는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북대학교 SW중심대학사업단, 전주대학교 LINC 3.0 사업단, 우석대학교 LINC 3.0 사업단, 전주비전대학교 LINC 3.0 사업단이 참여해 지역 인재들이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춘 행사를 진행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는 지역 IT/SW 우수기업 25개사가 참여해 직접 현장 면접을 진행하는 등 청년들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현장 면접에 참여한 청년들은 현장에서 실질적인 피드백을 받으며 자신의 경력을 쌓는 데 도움을 받기도 했다.

또한 이번 페스티벌에서는 공공기관 채용 설명회와 함께 취·창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명사 특강도 마련돼 취업 준비 및 경력 개발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명사특강에는 김인철 ㈜야나두 대표이사와 이소영 마이크로소프트 이사가 강사로 나서 각각 '100% 성공하는 법'과 'AI혁신시대, 4가지 생존코드'를 주제로 강연을 펼쳤다.

이와 함께 취·창업상담관에는 창업 상담 전문가가 상주해 △창업브랜딩 △노하우 △마케팅 △지원사업 등에 대한 상담을 진행했으며,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전주시 일자리정책과가 참여해 일자리 정책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등을 지원했다. 또, 창업 프리마켓과 푸드트럭을 통해 지역 창업기업의 신제품이나 아이템 등을 체험할 기회도 제공됐다.

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앞으로도 지역대학과 함께 J-디지털 취창업 페스티벌 등 다양한 취·창업 연계프로그램을 구축해 디지털 신기술 분야 지역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돕고, 신산업 저변 확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종성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과 청년 간의 연결을 강화하고,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길 기대한다"면서 "이번 취·창업 페스티벌 외에도 다양한 IT/SW 분야의 인재 육성에 힘써 전주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적극 앞장서겠다"라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경력단절여성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 열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10개 기업 현장 면접 등 진행

전주지역 경력단절여성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한 현장 채용행사가 열렸다.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관장 박성숙)는 24일 센터 4층 민들레홀에서 직업교육훈련 및 집단상담프로그램 수료생과 여성 구직자 등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1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재취업 성공과 도약을 응원하기 위한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개최했다.

이번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에서는 구인·구직 매칭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현장 채용 면접부스가 마련됐으며, △전문가 코칭 △이력서·자소서 상담 △취업 정보 공유 등 다양한 취업역량 강화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됐다.

구체적으로 '직업 도전관'에서는 관내 10개 여성 친화기업의 현장 채용 면접부스가 마련돼 사무관리, 교육·연구, 음식·숙박, 보건·의료, 사회·복지, 제조업, 기타 직종 등의 직원 채용 면접이 진행됐다. 이날 100여 명의 지역사회 구직자들이 1:1 현장 채용 면접에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전문가 멘토 코칭관'에서는 △경력 개발 상담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작성법 등 분야별 전문가 맞춤형 멘토링 및 코칭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진로체험관'에서는 △퍼스널브랜딩-강점찾기 △지문적성검사 △친환경제품 제작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다.

이외에도 행사장에는 전주시 여성재도전사관학교 예비 창업자들의 공예품과 식품, 미술키트 등 다양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는 플리마켓도 마련됐다.

박성숙 전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앞으로도 구인·구직 만남의 날 행사와 함께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 여성고용 창출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설공단, RE-Mail 캠페인 추진

전주시설공단(이사장 구대식)이 'RE12(알이 트웰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RE-Mail(알이 메일) 캠페인'을 추진한다.

24일 공단에 따르면 RE-Mail 캠페인은 불필요한 이메일을 삭제해 디지털 탄소 발자국을 줄이자는 캠페인이다.

이메일을 데이터센터에 보관하는 과정에서 전기가 소모된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실제 1통의 이메일을 보관하는데 약 4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신도 모르게 매일같이 메일함이 쌓이는 스팸 메일과 상업성 광고 메일이 정리 대상이다.

공단은 이메일을 삭제하기 전과 삭제한 후를 비교한 사진을 인증하는 방식으로 챌린지를 이어갈 예정이다.

직원 한 명이 여러 이메일 계정으로 챌린지에 중복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김옥기 기자

전주페스타서 미식도시 전주의 맛 만난다

맛잔치·맛자랑 운영… 미리 맛보는 시식회 열려

오는 10월 한 달간 전주종합경기장에서 펼쳐지는 '전주페스타 2024'에서는 미식도시 전주의 맛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다.

전주시는 24일 시청 구내식당에서 '전주페스타 2024'의 전주 손맛 음식 판매존의 대표 메뉴를 평가하는 '맛잔치·맛자랑 미리 맛보기' 시식회를 개최했다.

'전주페스타 2024'의 둘째 주와 셋째 주에 펼쳐지는 '맛잔치·맛자랑'은 전주지역 4개 자원봉사단체들이 운영하는 음식 판매존으로, 전주의 손맛을 다채롭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맛잔치·맛자랑 미리 맛보기' 행사에서는 자원봉사단체별로 각 5가지의 대표 메뉴를 선정해 총 20여 가지의 음식을 선보였다.

우범기 전주시장과 시청 구내식당 직원, 전주시 공무원 서포터즈인 '전주페스타지기', 시민 블로그 기자단 등으로 이뤄진 평가단은 맛과 가격, 플레이팅 등을 점검했다.

시는 시식회의 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맛잔치·맛자랑'에 대한 시민과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전주페스타 2024' 준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김재훈 기자